

# 목포시, 문광부 관광거점도시 선정 '사활'

### 미래 먹거리 만들기 모든 역량 집중...1차 관문 통과 5년간 500억 지원...여수·전주 등과 최종 선정 경합

목포시가 5년 동안 5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관광 거점도시 사업' 공모에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최종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목포시는 최근 "전국 237개 기초 자치단체 중 4곳만을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이번 공모에 목포시를 비롯해 강원 강릉, 충남 보령, 충북 청주,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남 통영, 경북 경주·안동 등 전국에서 9개 도시가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 500억원에 지자체 500억 등 모두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재정이 열악한 목포시 입장에선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는 게 시청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민선7기 출범 초부터 김종식 시장은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낭만항구 목포', '맛의 도시 목포', '1000만 해양관광도시 목포' 등 3대 비전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목포 미래 먹거리 산업(관광+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특히 관광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관광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삼아 관광거점도시 선정으로 큰 그림을 최종 완성하겠다는 게 목포시의 목표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목포와 경합 중인 여수·전주·전주시는 이미 관광도시로 명성을 구축하고 있어 어렵고 힘든 경쟁이지만 목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시가 관광거점도시 공모 1차 관문을 통과해 최종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케이 블카 탑승을 기다리는 관광객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또 김 시장은 "국가와 권역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도시 목포, 관광 산업으로 목포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드는 제조산하(再進山下)의 각오로 목포의 심장이 다시 뛰는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를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중환의 시 담쟁이)"를

인용하면서 "절망의 벽을 넘는 담쟁이 잎 수천, 수만의 결연한 의지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6일까지 현장실사를 받고 21일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도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첫 민선 목포시체육회장에 송진호

### 2022년 전국체전 준비 임무 막중

목포시체육회를 이끌어 갈 첫 민선 체육회장에 송진호(사진) 전 전남육상연맹회장이 당선됐다.

목포시의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인 수 176명 가운데 166명이 투표에 참여해 송진호 후보가 149표를 획득, 16표를 얻는 데 그친 이광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신임 체육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돼 2023년 1월까지다.

특히 오는 2022년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신임 송 당선자는 "체육에 경제개념을 접목 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킨 체육행사를 개최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데 체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회를 만들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행 중인 노인일자 리와 체육을 접목시켜 당구, 바둑, 게이트볼, 파크골프, 궁도 등의 종목 코치로 선임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한편 송 당선자는 전남도교육청 산하 체육지도자 무기직 전환에 일조했고, 목포 육상대회를 아시아 공인 국제 육상투적대회로 승격시킨 산증인으로 육상 종목에서 한걸음 걸여 온 생활체육인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목포 올해 으뜸시책 '에너지 융·복합단지'

### 시, 10대 시책 발표

목포시가 실시한 2019 올해의 10대 시책에 '국가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기업유치실)이 으뜸 시책으로 선정됐다.

목포시는 30일 "공직자 390명과 시민 158명 등 모두 5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가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이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목포시가 중점 추진한 사업들 중 10대 시책을 선정해 결과를 공유하고 시상함으로써 향후 업무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했다.

대상산단이 융·복합단지에 포함되면서 목포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산단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구 내 에너지 특화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각종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비 지원 등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김종식 시장의 핵심공약인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권에 11조가 투입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목포산단은 서남권 신재생에너지 거점항으로, 신항 배후부지 및 대양산단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부품 생산의 거점으로 육성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우수에는 '장차도 해양관광리조트 유치'와 '국제슬로시티 인증'(관광과)이 뽑혔다.

이울러 장려상은 '제1회 섬의 날 국가행사 개최'(기획예산과), '목포 가을페스티벌 개최'(문화예술과), '으뜸 맛집 선정'(관광과)이 각각 차지했다.

'목포사랑운동 추진'(자치행정과)과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지역경제과), '해상케이블카 개통대비 교통대책 추진'(교통행정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보건산업과) 등은 노력상에 선정됐다.

한편 10대 시책 중에서 목포가을페스티벌, 목포사랑운동, 교통대책,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은 '가장 시의적절한 시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상복 터진 목포시 사회복지...5개부문 우수기관 선정

목포시가 사회복지분야에서만 5개 부문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올 한해 괄목할 성과를 거둔 복지 분야 최고의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앙부처 주관 각종 평가에서 총 5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5660만원을 받게 됐다.

구체적 수상 내역을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최우수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우수상'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개인정보보호분야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기초생활보장분야 '보건복지부장관상' (이상 보건복지부)을 차지했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행정안전부)을 받았다.

정지숙 목포시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직 대폭 증원과 23개동 간조직 배치로 동행복지센터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점이 중앙정부 평가에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맞춘 신규 수급자 발굴 등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2019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최우수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일자리창출 우수상을 수상했다. <목포시 제공>

## 목포해양대, 신규 교육시설 사업비 170억 확보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박성현·사진)는 교육부 승인을 통해 2020년 신규 시설 사업비 총 170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교류센터·박물관은 2018년 6월에 등기 완료된 복합 대학부지에 짓는다.

내년 4월까지 외부 전문 기관 설계 공모를 거쳐 총사업비 177억원, 약 6500㎡ 규모로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박성현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은 "개교 70

년 해양-해운 교육역사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재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최신화된 교육 시설 구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 함평 국민방제대원 3명에 감사장

### 학산항 기름 유출 신속 방제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함평 학산 어촌회관에서 함평 학산항 기름유출사고 당시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한 이원철씨 등 함평 학산 국민방제대원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함평 학산 국민방제대원 14명은 지난 1일 함평 학산항 K수산 보일러용 연료(경유)탱크 파이프가 파손돼 경유 약 100 l가 인근 해상으로 유출된 것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갯골 내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방지했다.

이날 감사장을 전달 받은 함평 학산 국민방제대장이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감사장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민방제대원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채광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국민방제대가 설립된 취지와 가장 잘 맞는 모범적인 본보기였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 함께 가꾸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